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촌개발



엄 대 호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팀장

1. 서 론

최근 WTO·FTA등으로 농업분야 수입개방의 파고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의 농업과 농촌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정부 및 지자체, 사회단체 등에서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농업·농촌의 현실에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농촌의 전통토속자원 등의 다각적인 활용 방안이 농촌주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대두되면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향토자원의 발굴·육성 대안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향토자원은 그린투어리즘의 대상으로서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며, 도·농 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도구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 향토자원을 산업화할 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가속화되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에서는 2004년도부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특별법」)을 제정하여 「향토산업의 진흥」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농업·농촌기본법」에서 「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하여,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삶의 질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어촌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산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문화·기술을 활용한 향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소득증대와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향토산업의 진흥이 필수요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농업·농촌기본법」에서는 소득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조성,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의 육성, 농산물가공업을 비롯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등과 지역의 특색을 살린 녹색관광 및 휴양자원의 개발, 지역문화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개최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적 측면에서 향토자원을 발굴·육성하여 산업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지역의 역량, 발굴기술, 산업화기술, 경영기술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많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지속적인 정책추진으로 향토자원의 발굴육성이 농촌지역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향토자원을 산업화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며, 인프라 구축은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지자체·연구기관·농촌주민·관련기관 및 단체등이 협력하여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협력시스템을 향토산업 클러스터라고도 한다.

향토산업육성사업 예산이 아직 향토산업을 활성화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예산이나 농촌지역개발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인식하여 연구개발 확대, 지원예산의 확대 등을 통해 향토산업의 성공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길 기대한다.

본 고에서는 향토자원 및 향토산업의 개념 정리, 향토산업 사례 고찰,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촌개발 전략과 추진 방향 등에 대해 필자의 관점에서 기술코자 한다.

2. 향토자원과 향토산업 개념 정리

가. 향토자원

향토자원은 광의의 개념으로서 그 지역에 특색 있는 생태자원, 역사, 문화자원, 지역특산물 등을 총칭하며, 사전적 의미로서는 사람들이 사회공동체로서의 의식을 갖는 일정한 지역사회에서 그 지역에 내재된 유·무형의 소재 즉, 기후, 토양, 위치 등 지역의 물리적 요소에 의해 나타나는 차별적인 특성을 지닌 것과 일정 지역 내에서 생활과정을 통해 토착·계승되어 온 생활양식이나 관습 등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전통성)을 지닌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향토자원을 개발·활용하여 사회공동체로서의 의식을 갖는 일정한 사회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향토산업이라고 하며, 향토산업은 도·시·군에 비해 소득이 낮고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농업인 들에게 농외 소득의 근원으로 최근 부각되고 있다. 또한 향토산업은 지역성과 전통성이 강하므로 그 지역을 지키며 살아온 농업인이 그 지역의 특성과 전통성을 체득하고 있으므로 농업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향토자원을 분류하면 표 1과 같다.

향토자원은 향토산업으로 육성발전될 때 농외소득을 유

발시켜 농촌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나. 향토산업

향토산업이란 농촌지역에 부존(賦存)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1차·2차·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할 수 있으며 재배·가공·관광 및 서비스산업이 복합·융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보성 녹차, 함평나비 등)을 말한다.

향토산업의 정의는 연구자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핵심적 개념은 지역사회, 지역성, 전통성이 있는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복합·융합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향토자원이라 함은 기후, 토양, 위치 등 지역의 물리적 요소에 의해 나타나는 차별적인 특성, 즉 지역성을 지닌 것을 말하며, 특성 있는 전통자원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사회내의 생활과정을 통해 토착, 계승되어 온 독특한 생활양식이나 관습 등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 즉 전통성을 지닌 것을 말한다.

지역성은 산지나 산출물처럼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 공간적 개념이며, 전통성은 전통지식, 전통고유문화, 기술 등처럼 오랜 시간을 거쳐서 형성된 시간적 개념으로 양자간에는 지역적 특성 즉 지역성으로 인하여 전통성이 각 지역에 다르게 형성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향토산업의 판단은 지역성과 전통성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전통성은 해당지역에 오래전부터 토착·계승되어 현재 그 지역민들이 관습(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의 여부, 해당지역에 현재는 존재하지 않으나, 오랜전에 존재했었던

표 1 향토자원의 분류

1차 산업	전통적으로 유명한 산지	지역적 소재의 산지화	지역특성에 맞는 산물 도입
	괴산 고추, 풍기인삼 등	북제주 선인장, 당진 초락도 약쑥	고창 복분자, 청양 구기자 등
2차 산업	전통적으로 유명한 산지	전통지식 등의 소재를 산업화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
	남원목기, 한산모시 등	장생도라지, 안동간고등어, 황칠	보은황토, 보령머드산업
3차 산업	지역특성을 관광지나 축제화	지역이미지를 캐릭터나 브랜드화	지역식생활을 식당이나 프랜차이즈화
	무주반딧불이 축제, 영월 레프팅 산업	장성홍길동, 안성의 안성맞춤 캐릭터 산업	마산 아구찜, 포항 과메기 등

자료: 중소기업청(2004), 향토산업육성전략연구

가의 여부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지역성은 해당지역에만 존재하는가의 존재의 유일성 여부, 타 지역에도 존재하지만 해당지역에 존재하는 양적인 정도의 여부, 타지역에도 존재하지만 질적인 차별성, 특이성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향토산업의 유형은 1차, 2차, 3차산업으로 산업별로 구분할 수도 있고, 소재·제품 고도화형, 인적자원·기술 고도화형, 지역자원 복합고도화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향토산업 사례

가. 보성녹차

역사적으로 보성지역에서는 1478년 이전부터 차가 재배되었던 것으로 동국여지승람(1478년)과 산양지에 토산품으로 차생산에 대한 기록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사실상 보성지역에 전문적인 차재배지가 조성된 것은 1970년대 이루어진 근대화사업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에 하동 등 다른 지역으로 차품종을 분양하는 등 보성이 차재배를 하여왔으나, 1970년대 이후 차 관련 산업의 쇠퇴로 점차 차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빛을 보지 못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다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늘어나 2002년에는 190호의 재배농가와 27개의 녹차가공업체를 통해 연매출 261억원에 달하는 지역 핵심산업으로 부상하였다.

2004년 보성녹차의 응용제품 및 생산·가공 현황은 표 2 및 표 3와 같다.

녹차는 단순히 찻잎을 채취하여 상품으로 가공하여 판매

표 3 생산·가공현황

자동화 공장	수제차 가공	비 고
7개소 (214ha)	28개소 (103ha)	단순재배 239농가(234ha)
대한다원, 보성녹차, 보성제다, 옥로제다, 신옥로제다	은곡다원, 산장녹차, 북재다원, 반야다원, 천보다원 등	생업생산판매



그림 2 보성 경사지 녹차밭



그림 3 보성녹차 제품

표 2 유형별 응용제품현황

유형별	응용제품 (총 60개 품목)
차류(브랜드)	티백류, 녹차류(우전, 곡우, 세작, 중작, 대작)
가루차	국수, 케이크, 아이스크림, 캔디, 초콜릿, 양갱, 젤리, 소금, 라면, 수제비, 메밀, 우동,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추출액	캔음료, 녹차소주, 껌류, 카테일용, 막걸리, 코팅가능성 쌀
카테킨	녹차비누, 치약, 화장품, 세안제, 입용제, 다이어트 식품
차엽부산물	탈취제, 사료(녹우, 녹돈, 녹계), 비료, 육류절임, 원예재배 생리활성제

하는 것에만 국한된 소재가 아니라 다양한 2차·3차 산업으로의 연계가 가능한 소재임을 보성군의 사례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성 녹차를 이용한 해수탕 개발과 녹차 사료를 먹인 녹우·녹돈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녹차잎을 섞은 사료를 먹여 키운 보성녹우와 보성녹돈은 육질이 연하고 향기가 있으며 저콜레스테롤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날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데 이를 보성군의 특산품으로 활용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밝게 해주고 있다.

보성 녹차가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된 이유중의 하나는 군, 대학(전남대, 순천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으로 구성된 클러스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관·산·학·연이 함께 노력을 하여 왔기 때문이다.

보성녹차가 성공을 거둔 요인중의 하나는 지리적표시제, 품질관리제를 실시하여 품질경쟁력을 확보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품질경쟁력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군청과 생산·가공업체의 노력의 결과다.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질의 균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품질의 균일성은 여러 생산자, 가공업체에서 균일한 품질을 얻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러한 품질경쟁력확보는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여 왔다.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은 철저한 품질검사이다. 품질검사를 위해 보성군 차시험장, 전남대연구소, 군,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지리적표시제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차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품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일반인은 어떤 것이 고가 상품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수입녹차의 증가와 하동, 제주도, 사천, 정읍 등 타지역의 재배면적의 증가는 보성 녹차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지금부터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어떤 하나의 농산물이 경쟁력이 있다고 지원하는 정책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한 농산물관련 사업이 성공을 거둔 예를 찾아 보기 힘든 것도 지역별로 차별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여 잘되는 지역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지원으로 타지역의 생산량을 일시에 증가시켜 잘되는 지역도 어려움에 처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을 고려한 지역별 차별화된 향토산업 정책 추진이 있어야 향토산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담양에는 대나무가 지역특산물이니까 대나무와 관련 향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제천은 약초가 특산물이니까 약초관련 향토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등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장기적으로 지역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다.

나. 고창 복분자

복분자(覆盆子)는 장미과에 딸린 낙엽관목, 요강을 뒤엎는 과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고창군 선운산 일대에서 30년전부터 복분자를 채취하여 민간에서 가공후 관광객에게 판매되면서 복분자주가 점차적으로 알려졌다.

'04년 고창복분자는 2,154재배농가에서 총1,515톤(10a당 500kg)을 생산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484 ha(하우스 72ha, 노지 412ha)이다.

고창복분자 국내외 인지도 상승 계기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99년도 북한방문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복분자주를 선물로 주면서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2000년도 우리식품 세계화 특별포럼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때 공식 만찬 건배주로 사용되면서 세인의 이목이 집중되어 인지도가 상승되고 복분자주가 '주류시장의 신데렐라'로 급부상하게 되었고, 2000년도 41 ha에서 2003년도에는 303 ha로 매년 폭발적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면서 고창군 야산개발지의 고소득 대체 전략작목으로 부상하였다.

고창 복분자가 현재의 수준까지 온 것은 군직원들의 적극적인 홍보노력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직원 각자가 복분자를 집에서 복분자주를 담아서 서울에 있는 식당이나, 친척집에 보내 고창복분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려는 노력을 군직원 스스로 자발적으로 홍보를 하였다. 군직원이 복분자를 집에서 직접 담아 서울 친지에게 선물로 제공을 하고, 친척이 운영하는 수도권에 있는 횡집에 제공을 하여 서비스주 손님들이 맛을 보게 함으로써 복분자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중앙부처 손님들이 군을 방문을 할 때에도 복분자를 선물로 제공하거나 맛을 보게하여 복분자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를 하였다. 관광 축제 때는 군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집에서 담은 복분자주를 관광객들에게 맛을 보게하여 복분자의 우수성을 홍보하였다. 복분자 생산업체에서도 맨투맨 전략으로 개별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왔던 결과가 지금의 복분자가 있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복분자는 고창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축제와 연결을 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고창의 주요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는 선운사, 고인돌군, 풍천장어 등이 있으며, 이



그림 4 고창 복분자 열매



그림 5 고창 복분자주

러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축제가 성공을 거둬으로써 지역관광축제 때 복분자를 적극 홍보하는 전략으로 군청공무원, 업체, 군민이 합동으로 노력함으로써 복분자산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전국 처음으로 복분자시험장을 군산하연구기관으로 설치하여 재배기술과 복분자주의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고창의 복분자는 바닷바람의 영향으로 타지역보다 우수한 제품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복분자를 이용한 다른 산업분야 육성을 위해 한과, 주스, 우유첨가제 등의 기술개발로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복분자 관련 기술은 군비를 투입 개발하여 고창관내 복분자업체에 전부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 군의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지원 노력이 복분자 산업을 육성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4.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촌개발전략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농촌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필자의 관점에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정책적 지원

향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이 중요하다. 예컨대, 담양 대나무, 서천모시, 함양 옻나무 등은 1차 산물의 수요처가 안정적이지 않으며, 가공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상품의 수요처가 안정적이지 않으므로 그 상품의 수요처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1차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득보조정책과 연계 추진이 요구된다. 소득보조정책으로는 직접지불제를 통하여 향토자원을 생산하는 농가 또는 농촌주민에게 직접적인 지원과 향토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지역특산물등 향토자원의 연구개발지원, 향토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나. 향토산업 인프라 구축

향토자원을 발굴하고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별 차별화 및 특성화를 위한 전문업체의 육성과 향토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도로개설, 용수공급시설 설치, 하수도 시설 설치 등 기반시설의 설치와 오페수처리 시설 및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인프라는 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진흥지구내의 도로개설, 용수공급시설의 설치에 기존의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추진되면 효과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진흥지구내의 향토산업전문업체에 대해서는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 향토지적재산권 확보

향토지적재산을 발생역역별로 분류를 하면 자연생태, 생산관련 기술, 생활 관련 유산, 문화유적, 인물·유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연생태는 자연경관, 토종식물, 향토동식물등을 말하고, 생산관련 기술은 특산농산물 및 가공품, 공예품, 민예품 등을, 생활관련 유산은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기타 생활용품, 마을 및 생활주변, 민속·설화 등을, 문화유적은 역사문화와 관련된 유적등을, 인물 및 유물은 사람중심의 역사와 역사적 사건 등을 말한다.

향토지적재산은 발생역역별로 권리화가 가능하며, 권리화의 가능형태별로 구분을 하면 사유화 가능한 권리와 공유화가 가능한 권리로 나눌 수 있으며, 사유화 가능한 권리는 향토지적재산 소재로부터의 변형에 따르는 비용이 소요되고 그 정도가 큰 경우 즉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있으며, 공유화가 가능한 권리는 향토지적재산 소재가 원형 그대로 활용되거나 또는 원형에 가깝게 활용되는 경우와 지리적 표시제와 같이 소재 발굴·보전이 지역내 집단에 의하여 성취되는 권리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향토지적재산은 특허법에 의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특허법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지리적표시제등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인식 부족과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여 실질적인 아류상품(보성산 녹차)에 대한 제재가 없어 동반 브랜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보호권이 미약하여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발생역역별로 권리화 가능한 부문은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그 지역의 향토산업이 진흥될 수 있다.

기존의 특허법과 지리적표시제등의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과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지역향토산업을 진흥시키는 전략이 있을 수 있으며,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강력한 법의 제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라. 향토산업 클러스터 육성

향토산업은 1차산업의 생산물과 2차산업의 가공제품 3차산업의 판매·유통업이 그 지역내에서 결합되고 지역내 타 산업부문과 연계가 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경

쟁력 있는 지역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향토산업 클러스터는 1차산업의 생산, 2차산업의 가공, 3차산업의 유통 및 농촌관광, 연관된 타산업, 향토산업 관련 연구개발기관, 향토산업 지원 후견조직, 지자체, 지원 공공기관 등이 결합되어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 지역내에서 형성되어 발전하는 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향토산업클러스터는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며, 계획적으로 제도적으로 추진되어야 성공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하나의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산업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향토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된 지역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높으나,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 각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은 희박해질 수 있다.

5. 맺음말

최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향토자원은 농촌주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발굴·활용되고 있다.

향토자원을 어떻게 잘 발굴하여 활용하느냐에 따라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개발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심층적이고 다양한 각도에서 농촌개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농촌개발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첫째, 향토자원은 지역성과 전통성을 그 기반을 두기 때문에 농촌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향토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은 1차산업의 재배, 2차산업의 가공 3차산업의 관광 및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6차산업을 지향하지만, 괴산 고추, 풍기 인삼, 고창 고분자, 청양구기자, 북제주 선인장 등 1차산업의 비중이 높고, 2차산업인 서천 한산세모시, 담양 죽세공품, 장생 도라지 등도 1차산업을 가공한 것으로서 1차산업인 농업과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는 산업이다.

이러한 향토산업은 도시민에 비해 소득이 낮고 생활여건이 열악한 1차산업을 생산하는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됨과 동시에 지역성과 전통성이 강하므로 그 지역을 지키며 살아온 농업인이 그 지역의 특성과 전통성을 체득하고 있으므로 농업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향토자원은 농촌관광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그 지역에서 전승, 계승되는 무형의 전래 풍속, 민요 등 문화적 자원과 옛고분, 종가의 전통가옥, 장승, 성황당 등 향토자원들은 역사·문화체험관광자원으로서 보전·유지·발전시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려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으며,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촌개발정책으로는 농촌전통테마마을, 농촌관광마을 등이 있다. 이러한 농촌관광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지역의 향토자원을 잘 발굴하여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향토자원은 농촌지역이 처해져 있는 입지 환경, 자연·사회·문화·경제적인 환경에 따라 역사문화등 고유성을 가진 독특한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므로 수요자와 직접 연결할 수 있고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시장별 연결고리를 활용한 계절별·지역별 다양한 소재 개발에 의하여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향토자원을 발굴·육성하여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정부기관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향토산업은 농촌지역의 산업체와 농가에게 그냥 맡겨 놓고 자발적으로 해라고 하는 것은 강가에 어린이를 놀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나약한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농촌주민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향토산업을 잘 육성한다면, 소득이 열악한 농업인에게도 좋은 소득원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토산업은 순수하게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잘 발전을 시켜나간다면 국가경제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효율적인 On-off Line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On-line시스템은 전자상거래에 의한 유통구조를 말하며, On-line시스템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중간도매상과 소비자가 거래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효율적인 On-line시스템에 의한 유통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향토산업 관련업체와 생산자의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통합적인 On-line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Off-line 시스템은 시장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차 경매시장은 보성에 유치하고, 약재시장은 제천에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향토산업 관련 시장의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이 있어야 지역의 향토산업시장이 활성화되어 향토산업이 성공할 수 있으며, 농촌지역도 함께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전국적인 향토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어야 향토산업이 발전될 수 있다.

보성의 녹차의 성공과 고창의 복분자의 성공은 농촌지역 향토산업에 새로운 희망을 줄 뿐만아니라 향토산업이 농촌주민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몇지역이 성공을 했다고 하여 대부분의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성과 고창과 같은 성공모델을 타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역간 네트워크 형성에 의한 전국적인 향토산업 클러스터 형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고창에서 복분자가 성공을 했다고 타지역도 복분자를 재배하는 것은 곤란하다. 재배하는 지역이 많게 되면 가격은 당연히 하락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공한 지역도 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향토산업 로드맵을 작성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향토자원을 개발할 때만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전국적인 향토산업이 균형되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시민에 비해 소득이 낮고 생활여건이 열악한 농촌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근원으로서 향토산업이 부각되고 있지만, 이러한 향토산업은 정부·지자체의 지역별로 특화된 향토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 가능성이 있으며, 향토산업구성주체들은 수입품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향토산업을 육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엄대호, 2004,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자원개발 전략, 삶의질 높임과 농촌자원개발 포럼자료집
2. 엄대호, 2004, 향토산업클러스터 육성에 의한 농촌활성화 전략

락, 삶의질 높임과 향토산업 심포지엄자료집

3. 특허청, 2003, 지역특산물 명칭의 지리적표시 보호 대상 여부에 관한 연구
4.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2006, 향토자원평가연구
5.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2004, 농촌지역향토산업 육성 방안
6. 광주전남발전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사)향토지적재산본부, 2004, 향토산업 육성 방안
7.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2004 『향토산업육성전략 연구』, 중소기업청